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East Asian Community

Myth & Reality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지은이 하영선 편
발행자 이홍구
발행처 (재) 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2008년 4월 5일
2008년 4월 5일 1쇄

편 집 신영환
디자인 김민주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2277-1683 (대)
팩스 02-2277-1684
홈페이지 www.eai.or.kr

등록 제2-3612호 (02.10.7)

값 18,000원
ISBN 89-92395-04-5 (93300)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하영선 편

East Asian Community

Myth & Reality

edited by
Young-Sun Ha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은 21세기 미일 신동맹 강화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이 논의에 열심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뒤늦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탈냉전을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 가능성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담론과 정책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의 치열한 부국강병 경쟁을 기반으로 형성된 근대국제질서는 자기부정의 위험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지구화와 지방화라는 복합변환의 21세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가들은 단힌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의 3대 중심 지역인 유럽, 미주, 그리고 동아시아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여건, 그리고 미래 전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유형의 지역화

를 모색하고 있다. 근대 국가체제의 노년기에 접어든 유럽은 27개국의 국가연합(federation)인 유럽연합이라는 역사적 실험을 야심차게 수행하고 있다. 한편 연방국가(confederation)인 미국은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를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아직 청년기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화 논의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21세기 복합변환의 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대 뒤편으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즉 동아시아형 지역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실질적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과 갈등의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적 제약과 내일의 꿈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 만들기’가 필요하다. 19세기의 부국강병론으로 21세기 미래를 품기 어렵다.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현실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동아시아 한마음 모임의 미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20세기 국제사회론도 19세기적 현실과 21세기적 미래를 동시에 품기는 어렵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패널NSP은 동아시아 지역화 논의를 21세기답

게 격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갈등의 현실을 과거와 미래의 편견 없이 보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이러한 현실 분석 위에 국내외 동아시아 담론의 신화성을 따졌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미래로서의 동아시아 지역화를 위한 새로운 담론의 가능성을 토론했다.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토론은 우선 동아시아 지역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간단히 검토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무대의 대표적 주인공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지역협력과 갈등, 그리고 지역화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신화성을 밝혔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군사, 경제, 정보/지식, 문화, 에너지/환경 무대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신화의 드라마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화의 복잡성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걸음마로서 군사와 경제 분야의 동아시아 협력과 갈등, 그리고 지역화 추세 자료들을 정리했다.

EAI 국가안보패널은 지난 4년 동안 진행해 온 방식대로 관련 정부 공식문서, 주요 연구소 보고서, 연구논문 및 저서들을 함께 읽었다. 동시에 패널참가자들은 연구계획서 작성, 장과 절 잡기, 초고 읽기라는 3단계의 난상토론을 거쳐 글을 완성시켜 나갔다. 사실상 토론 내용의 대표집필인 셈이다. 토론을 거듭할수록 문제가 풀리기 보다는 어려워져 갔다. 한국의 국제정치연구와 지역연구가 갖고 있

는 한계 때문이다. 한국 국제정치연구는 국제정치체제를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본 성격을 구체적으로 천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지역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 연구에 몰두하는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이 엮어내는 질서를 추상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1년 반 동안의 국제정치학과 지역연구 사이에 대화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공부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화에 대해 과거와 미래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새로운 발상의 접근을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21세기적 궤도 수정을 위해서 우리의 토론 결과를 중간보고하기로 결정하고 한 권의 책으로 묶게 된 것이다.

한 해 반 동안의 월례 토론이 한 권의 책 모습으로 엮여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 국가안보 패널 참석자들은 국내 학문풍토에서 보기 힘든 치열한 토론을 거듭했으며 여러 번 고쳐 쓰는 대표집필의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학문적 순수성과 열정에 각별한 고마움을 느낀다. 월례 토론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책의 최종 편집은 김하정 선임연구원과 신영환 연구원의 애정 어린 도움으로 가능했다. 특별한 인사를 하고 싶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연구비를 지원하고 신년특집으로 과감하게 지면을 할애해 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롯하여 김창기 편집국장과 김창균 정치부차장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이 그동안 마련했던 담론을 실천의 마당에 풀어놓기 위해 연구원을 떠난 김병국 전임 원장의 지원 없이는 오늘의 작은 결실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08년 3월
鄒齋 河英善

목차

서문		5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대한 미국과 인식	20
			미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대응 전략	28
			정책 및 전략적 시사점	28
1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하영선	17		
동아시아론의 역사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환				
21세기 동아시아 네트워크 복합체				
2 미래 동아시아 지역질서 분석을 위한 역사적·비교적 고찰	전재성		4 중국과 동아시아 공동체	이태환
서론		19	문제의 제기	19
유럽 지역질서의 변화와 지역주의 발전과정		20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	20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성격		28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28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		28	동아시아 공동체 : 전망과 중국의 전략	28
결론		28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28
3 동아시아 공동체와 미국 : 인식과 전략	김성한		5 동아시아공동체와 일본	손 열
문제제기		19	서론	19
			경제적 지역주의와 일본	20
			전략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대응	28
			중국정책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	28
			대미공조와 동아시아공동체	28
			결론	00

6 러시아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신범식	
문제지기		19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다자협력		20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러시아의 다자협력		28
러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 구축		28
‘아시아 공동의 집짓기’와 러시아		28
7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 기능성과 한계	이상현	
서론		19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 이론과 현실		20
동아시아와 안보공동체		28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추진전략		28
맺는 말		28
8 전환기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오승렬	
서론 : 세계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19
동아시아 역내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20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		28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	28
결론 :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28

9 동북아 지식네트워크	배영자	
문제제기		19
정보혁명과 세계지식질서		20
동북아 지식네트워크		28
동북아 지식네트워크 전망		11

10 동아시아 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	민병원	
들어가는 말		19
동아시아의 공동체 담론과 문화 변수		20
오리엔탈리즘과 세계화 : 동아시아 문화담론의 새로운 과제		28
공동체와 네트워크 :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가능성		11
맺음말		11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하 영 선

11 동북아 에너지 협력 : 신화와 현실	김현진
들어가는 말 : 도전받는 에너지 체계와 동북아 지역	19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복합화	20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에너지 협력	28
맺음말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신화와 현실	11
12 경제인덱스 : 역내통합과 역외의존의 이중구조	손 열
통합의 흐름	19
중국과의 동반부상	20
아세안의 무게	28
역외의존과 글로벌 네트워크	11
전략적 합의	11

21세기는 복합변환의 세기다. 근대 이래 지난 오륙백 년 동안 삶의 중심으로 집
중조명을 받아 온 국민국가도 새로운 변환의 길에 들어섰다. 안으로는 지방·개
인을, 밖으로는 지역·지구를 새로운 삶의 중심으로 품어나가고 있다.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국가를 여전히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지구화와 함께 중간
정검다리로서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지역 삶을 복합화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개별 국가들도 지구화와 지방화의 파도에 이어 지역화의 새로운 파도를 맞이하
고 있다. 특히 지역화 파도를 타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의 삶터 복합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의 적실성부터 체대
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변환의 모습을 조심
스럽게 관찰한 후에 동아시아의 새로운 삶터 건설을 위해서 어떤 시각에서 논의
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아시아론의 역사

21세기 한국이 새로운 삶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구와 함께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그리 오래된 지역개념이 아니다. 아시아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아시아인들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럽과 대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을 처음으로 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게 된 것은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2)나 구일리오 알레니 Giulio Aleni의 만국전도(萬國全圖, 1623)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세아(亞細亞)를 통해서다. 17세기 초 제수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서양의 세계지도는 한국과 일본에도 지체 없이 전파됐다. 조선에서는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1763), 하백원의 만국전도(萬國全圖, 1821), 최한기의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 1834)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니시가와 죠겐(西川如見)의 《증보화이통상고》(增補華夷通商考, 1708)에 실려 있는 지구만국일람지도(地球萬國一覽之圖)에서 쉽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배우성 외 1999; 貴志俊彦 외 2005, 제1부; 錢國紅 2004).

아시아라는 표현의 등장 이후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아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화이관에 기반을 둔 전통천하질서가 서세동점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럽중심의 근대국제질서를 받아들이며부터였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 빠르게 변환의 길을 선택한 일본은 구체적으로 1880년대에 흥아론(興亞論)과 탈아론(脫亞論)의 논의를 하고 있었다. 흥아론은 피상적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론의 첫출발로 착각할 수 있으나, 그 밑바닥을 내려가 보면 일본 아시아 맹주론의 다른 표현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제기한 3국동맹론과

동양평화론 같은 아시아연대론도 일본 일국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명실상부한 아시아 지역주의로서 성장할 수 없었다. 일본의 일국중심 아시아연대론은 20세기 상반기 '동아협력체'를 거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지역제국주의 모습으로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末谷匡史 2006; 子安宣邦 2003; Saaler & Koschmann, 2007; 平石直昭 1998; 이광린, 285-29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냉전질서의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분열의 역사를 맞이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이 직접 개입한 세계대전규모의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주도아래 사회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주의 무대의 대표적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재생의 길을 걷게 된다. 동아시아는 냉전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삶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를 하나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동회의 같은 예외적 노력이 있었지만 명분적으로는 중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냉전질서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1991년 해체됨에 따라 세계는 탈냉전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논쟁 속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여과해 낼 방과제로서 동아시아 지역화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Derbaum & Shaw 2003; Rozman 2004; Pempel 2005; Katzenstein 2005; Katzenstein & Shiraishi 2006; Aggarwal et.al. 2007). 한편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의 21세기 신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은 신동맹의 보완책으로서 소수 진보지식인들의 논의와는 다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毛里和子 2007; 進藤榮一 2007; 小原雅博 2005; 谷口 誠 2005; 伊藤憲一・田中明彦 2005; 渡邊利夫 2005; 添谷芳秀・田

所昌幸 編 2004).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국내경제 우선주의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종합국력과 더불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 조심스러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王毅 2007; Yaqing 2007). 그리고 한국은 탈냉전을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미국주도의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하고 있다(백영서 외 2005; 손열 2006, 2007; 김영작 · 김기석 2006).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상이몽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신화 만들기를 넘어서서 현실화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21세기 동아시아 변환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 다음에 21세기 동아시아 공생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의 마련에 나서야 한다.

21세기 동아시아 변환 무대의 주연은 미국이다. 동아시아와는 미국의 중심 샵터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동아시아라는 샵터의 변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연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지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국가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미국은 우선 안보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고 있다. 그 중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9·11 테러 이후 미국 국가이익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반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기반의 변환을 중시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와 이라크 전을 동시

에 교훈삼아 북한핵문제를 과거와 같이 핵확산금지를 위한 지구적 안보의 문제로 다루기 이전에 21세기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보고 북핵 폐기를 미국 안보의 필수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교훈은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최대한 다국적 외교수단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6자회담은 9·19 공동선언(2005), 2·13 초기단계 이행실천합의(2007), 10·3 이 단계 이행 실천합의(2007)에 기반을 두고 1단계 영변 주요핵시설 폐쇄, 2단계 영변 주요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3단계 북핵 폐기를 거쳐서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선군주의에서 개혁개방주의로의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 합의의 성공적 실천여부는 불투명하다(하영선 2006; Ha 2007; U. S. Department of State, 2007; Hill 2007).

부시 행정부는 동아시아 군사무대에서 군사변환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은 위치, 규모, 임무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의 해외 주둔군이 주둔군에서 유동군으로 변환하는 전반적 추세에 따라, 냉전의 대표적 상징인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최전선에 장기적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여 고도의 유동성을 갖춘 동아시아 신속 유동군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가 아니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군사변환의 추세에 따라,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소수 정예 첨단 정보군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21세기 신홍길동군으로 변환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전통적인 한반도 안정의 임무를 넘어 서서 21세기 미국이 당면하게 될 단기·중기·장기의 위협과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새로운 임무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하영선 2006).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3대 중심축의 하나인 동아시아 경제 질서

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경제가 비록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10% 수준으로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지속적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하다.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혁 개방 정책을 밑거름으로 지난 30년간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계속해 온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 규모의 5%를 넘어섰다. 따라서 미중 경제관계는 동아시아의 지역경제나 세계경제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미일 경제와 미중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경제규모의 20%를 넘어섰으며 역내 교역률이 50%를 넘는 동아시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무대에서 미국적 가치와 행동 양식을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민주주의를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미국이 생각하는 지구 문명 표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부시 2기 행정부는 ‘폭정의 전초기지’인 김정일 정권이 미국형 지구 문명 표준을 거부하는 경우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북한에서 민주주의 리더십이 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고도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시장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미중관계가 갈등보다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얼마나 빨리 동질화되어 가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장민주주의 심화 문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반미정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맞게 군사·경제·문화·에너지/생태균형·기술/지식질서를 복합 조종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외교를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중심 협력 축으로서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군사·외교적 협력을 하고 있는 일본이 지역 및 지구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만들고, 다음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보다 광범위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반테러전 외교나 6자회담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Hill 2007; Negroponte 2007; Armitage & Nye 2007).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의 변환을 제대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치 지도부는 21세기 중국의 목표를 2007년 10월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5년 전 제16차 회의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4배 늘려서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최우선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선경제(先經濟)론 또는 선부(先富)론이다. 따라서 2020년 국내총생산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4천 달러 수준을 달성할 때까지는 “빛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등장을 강조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의 전략을 원칙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다(胡錦濤 2007; 江澤民 2003; 中共中央關於制定 2005a, 2005b).

중국의 이런 목표와 전략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7~8% 고도 경제성장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재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 계층 간 및 지역 간 불평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금융제도의 후진성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정치 개혁이다. 지난 30년의 고도 성장과정에서는 그런대로 결정적 마찰 없이 정치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적인 고

도성장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하게 현재 정치체제의 보다 본격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치 개혁은 이제까지의 정치적 변화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중국이 2020년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동시에 국제정치적 안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2006년 국방백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재편과 증가,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법 개정 추진과 해외 군사활동 증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불안, 중동정세의 불안정, 영토분쟁, 종족 및 종교분쟁, 테러리즘, 국내 사회경제 문제 등의 복잡한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문제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언급하고 있다(2006年 中國的國防 2006).

중국은 2020년까지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정 요소들을 일차적으로는 화평굴기의 시각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세계 경제적 위상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외교 군사적 역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도광양회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로의 과도기를 거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략 구상을 보다 전면에 내세워 궁극적으로는 대동(大同)아시아의 꿈을 펼쳐 나갈 것이다. 소강사회가 아닌 대동아시아의 중국은 동아시아의 경제 무대만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무대에서 보다 본격적인 주인공 경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王毅 2007).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 중국 다음으로 주요한 주인공은 일본이다. 20세기 후반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의 어려움을 겪은 후 21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동아시아 무대에서 중국이라는

주인공의 화려한 부상에 대응하여 21세기 신 동맹질서를 모색하는 미국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한반도와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무대의 기본 구도는 21세기 미일동맹 대 중국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는 2004년 12월에 1976년과 1995년에 이어 세번 째로 향후 10년의 일본 군사력의 장래를 보여주는 신방위대강을 발표했다.¹⁾ 신방위대강은 21세기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을 분석하면서 지구적으로는 국가 간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의 발생과 동시에 주요국가 간의 상호협력 및 의존관계의 심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주변에서는 양국간 및 다국간의 협력관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동시에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즉 다수의 국가가 군사력의 근대화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특수부대와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 해공군력의 근대화, 해양 활동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 발생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반면, 지역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21세기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증강, 미일의 21세기 안전보장체제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적극적 아시아외교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군사력은 21세기적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양국의 외교·국방담당 장관이 함께 만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²⁾

일본은 미일 신동맹 강화의 보완책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무역·투자·IT 등의 기능적 협력, 제도화, 공동체의식 형성의 단계

를 거쳐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논의를 정부와 학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큰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麻生太郎外相 2006).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는 아직까지도 역사적 유산을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속에 초보적 국제사회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76년 이래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왔던 아세안에서는 21세기 중국의 빠른 성장과 함께 중국과 주목할 만한 영향력 경쟁을 하고 있다(Terada 2006, 5-17).

20세기 냉전시대에 동아시아 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주연급 주인공으로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 주었던 소련은 1991년에 뼈아픈 해체의 길을 거친 후 러시아의 모습으로 새롭게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는 어려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강대국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으나 주연급 주인공의 역할을 다시 맡을 수 있을지는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Lavror 2007).

제국의 역사적 체험들이 있는 미중일리의 4대 강국들이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주인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은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냉전적 긴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영향력의 확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와 함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탈냉전 종족 분쟁과 같은 새로운 위협이 확산되는 세계안보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노무현 2007). 이 전략기조가 보여 주는 주요한 특징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경우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 협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주도 세력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탈냉전주의와 탈권위주의만으로는 중심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정치주도 세력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창조적으로 21세기 문명표준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의 위상은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탈냉전과 함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점점 더 동아시아 무대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김정일 수령옹위체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고난의 행군기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간신히 벗어났으나, 2002년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본격적 개혁·개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세기 동북아 무대의 국가 목표였던 강성대국을 21세기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핵이다.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따라서 수령체제의 주도세력이 선군주의 대신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핵무기의 전면폐기를 결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부시 2기 행정부도 ‘자유전파 외교’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물러날 빈 공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위협과 미국의 폭압 정권에 대한 자유전파 정책은 첨예한 대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핵선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폐기와 ‘제도 붕괴’의 갈림길에 접근할 위험성이 높다(하영선 2006).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지역 주인공은 유럽에 비

해서 아직 맹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대륙의 지역화 변화, 동아시아의 상호의존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지역화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까지는 이 지역 국가들 간의 힘의 불균형, 경제성장 단계의 상이, 공동인식의 맹아적 형성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1989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PEC 가 창설됐다.³⁾ 그러나 APEC은 ‘근대의 노년기’에 접어 든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까지 ‘근대의 청년기’인 이 지역 국가들의 치열한 힘의 각축,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 전통문화의 근대문화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초보적 국제협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기적’을 구가하던 동아시아가 통화위기를 맞았던 1997년에 3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이 한중일의 정상을 초대해서 아세안+3 회의를 발족했다. 아세안+3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동아시아의 상호의존 추세 속에서 무역/투자, 에너지, 환경보존, 식량, 지적재산, 금융, 정보기술, 개발지원, 초국가적 문제, 자연재해, 보건 등 17개 분야에서 48개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초기의 기능적 협력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등분야의 협력을 거쳐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Webber 2001, 339-372; Webber & Fort 2006). 한편 아세안+3 국가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16개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는 2005년 말 첫 모임을 가진 후 아세안+3과 병행하여 매년 회담을 열기로 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ASEAN 2005; Frost & Rann 2006).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21세기 동아시아 무대를 재구성해 보면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20세기 상반 일본 지역 제국주의, 20세기 상반 미소 중심 냉전의

시기와 차별화되는 21세기 상반 복합화시기의 동아시아 모습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 미국은 주연을 계속해서 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 집권 여부는 미국이 복합변환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남들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또 성공적으로 연기해내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떠오르는 공동 주연인 중국은 2020년까지 번영의 무대에서 최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무대에서도 점차 주연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위협적 부상을 미국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최대한 동참하면서 한국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은 탈냉전과 탈권위주의라는 20세기 표준으로 21세기의 숙제를 풀어보려는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19세기 표준으로 21세기의 길을 찾아보려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무대 위에는 국가 안팎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주인공들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엮어서 새로운 21세기 삶을 주도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소 중심의 냉전 기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의 주인공들은 복합화의 무대에서 새로운 연기들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기간의 부국과 강병의 무대는 유럽에 비해서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느리지만 안보와 번영의 무대로의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 안보 무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여 반 대량살상무기 테러전과 군사변환의 드라마가 동아시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선 경제주의에 입각한 평화굴기 정책과 일본의 중국 견제용 미국 활용정책에 힘입어 미국 주도의 안보 무대는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주인공들이 안보 딜레마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신뢰를 구축하

지 못하고 있어 지역적 대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갈등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Acharya & Goh 2007; Suh et. al. 2004).

21세기 동아시아 번영무대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주연, 아세안과 같은 조연, 북한 같은 단역들과 함께 국내복지 및 국제경쟁, 지역 및 세계 번영의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리면서 세계경제의 우등생이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은 후 21세기에 들어서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3의 GDP는 9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경제 규모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통화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지역내의 생산 및 교역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FTA가 현안 협력문제로 대두해 있다. 호주와 인도를 포함하면 EU나 미국과 거의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 무대에서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미국은 생산, 무역, 금융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이 큰 차질 없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경제무대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동아시아 무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달러의 일본, 2만 달러에 접근하고 있는 한국, 2천 달러 수준의 중국과 아세안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경제수준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번영무대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의 장인 동시에 여전히 개별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Munakata 2006; 浦田秀次郎・深川由起子 2007).⁴⁾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의 또 하나 새로운 특징은 21세기의 힘의 내용의 변화와 함께 문화, 에너지/생태 균형, 기술/지식 무대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더구나 흥미로운 것은 구 무대와 신 무대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어 무대들의 복합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동아시아 정체성을 키워 나가려면 동아시아 문화 무대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전통 동아시아문화는 19세기 중반 이래 구미의 근대국제질서와의 만남 속에서 개별 민족문화 또는 국민문화 중심으로 변환되는 역사적 운명을 맞이했었다. 20세기 상반기 일본 지역제국주의의 역사적 유산 청산의 미흡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떠오르는 중국의 새로운 역사쓰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한·중·일의 역사전쟁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문화 무대는 화합보다는 갈등의 드라마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새로운 삶터로 꾸미려면 제대로 된 문화무대의 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Jones & Smith 2007, 165-186; McCormack 2006, 47-65).⁵⁾

동아시아 에너지/생태환경 무대의 중요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석유 수입국가들인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는 석유 수요 공급 불안정, 석유가격의 지속적 상승,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치열한 에너지 확보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문제와 대체에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3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초보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산성비, 해양오염 같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생태균형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지역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Harris 2004).⁶⁾

정보혁명만은 부국강병 무대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제질서의 21세기적 변환 가능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번

영·문화·에너지/생태균형 무대도 21세기 정보혁명에 힘입은 지식무대 위에 재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복합 주인공들의 지식무대를 위한 첨단 정보 기술의 개발과 확보, 그리고 세계지식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제한적으로 지역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⁷⁾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정치 무대의 변환이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복합 주인공들은 21세기의 새로운 복합 무대에서 더 이상 과거 일국 중심의 외로운 늑대 연기만을 지속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미의 그물망 짜기 연기 만으로 변환기의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늑대 거미의 복합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하영선·남궁곤 2007, 서장; 하영선·김상배 2006). 결국 동아시아는 복합화되어 가고 있는 주인공과 무대를 새롭게 엮어 나가려는 정치 무대의 막을 이제 막 올리려는 순간에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네트워크 복합체

21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는 주인공들이 여전히 19세기적 일국 중심의 부국강병 경쟁을 치열하게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 현안문제에 따라서는 20세기적 다국간 지역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정체성의 꿈을 키워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고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동아시아를 구상하려면 현재와 같은 19세기형 자주균형론, 20세기형 국제사회론, 그리고 21세기형 공동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주균형론은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의 현실을 과거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국제사회론은 국가들의 이익 계산

에 따른 모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아시아에 내재해 있는 어제와 내일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동체론은 한마음된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없는 신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⁸⁾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을 제대로 읽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바람직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 동아시아 국제사회, 동아시아 공동체 대신에 주인공과 무대의 복합변환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 복합체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하영선·남궁곤 2007). 주인공의 경우에는 우선 주연급 주인공들의 패권국가화를 견제해야 한다. 미국이 오만과 일방주의의 위험을 넘어서서 무대의 모든 주인공을 품어 보려는 진지하고도 매력적인 노력을 본격화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주연급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일국 중심의 대국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을 위협적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일본 대(對) 중국의 대결 구조에만 소극적으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협력적 자주의 단순 사고를 넘어서서 하루 빨리 그물망 짜기의 복합 사고를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미일 관계와 한중 관계는 이중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그물망 짜기의 문제다. 한국은 21세기 한미일 그물망과 21세기 한중 그물망을 이중으로 튼튼히 짜나가면서, 동시에 지역 및 지구 그리고 사이버 그물망을 21세기의 새로운 삶터로 품어야 한다. 북한은 하루 빨리 반외세 자주와 같은 19세기적 사고를 졸업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21세기형 위정척사에 가까운 선군주의 주도의 부강국가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북한형 민주수령체와 개혁개방을 발판으로 해서 21세기 무대에 새롭게 서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아직 ‘근대의 청춘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이해의 협력보

다는 갈등의 첨예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안과 밖의 다양한 주인공들을 촘촘하게 그물로 엮어서 국가들 간의 갈등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나 APEC 같은 지역주인공, 지역시민사회연대, 동아시아 싱크탱크네트(NEAT)같은 지역관산학(官産學) 네트워크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21세기 동아시아 무대가 다보탑처럼 아름답게 3층 복합화돼야 한다(하영선·남궁곤 2007). 냉전기 동안의 동아시아 무대는 주로 일국 중심의 군사와 경제 무대를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 21세기에는 군사와 경제무대가 단순히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지구 이익, 그리고 국내의 시민사회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안보와 번영의 무대로 변환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무대와 새롭게 중요성이 증가하는 에너지/생태균형 무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안보, 번영, 문화, 에너지/생태균형 무대는 반드시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보기술에 힘입은 지식 무대 위에 마련돼야 한다. 3층 복합무대의 맨 위에는 지역무대 전체를 성공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정치 무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무대의 연기 내용도 동아시아 및 지구의 공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합화돼야 한다. 냉전 기간 동안에 주연을 맡았던 미국과 소련의 연기 내용은 보다 자기 중심적인 늑대 연기였다. 그러나 정보 기술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지구가 빠른 속도로 그물망으로 뒤덮여져 감에 따라 무대 주인공들의 연기 내용도 점차 썰 사이 없이 그물망을 짜서 먹이를 얻는 거미의 연기를 닮아 가고 있다. 결국 복합의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늑대와 거미의 복합 연기를 터득하고, 더

나가서는 보다 세련되고 매력 있는 주인공들 나름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지식기반 3층탑에서 짤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주인공, 무대, 연기가 복합변환에 성공해서 동아시아 네트워크 복합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주인공들은 지나치게 좁은 민족주의와 지나치게 넓은 지구주의의 한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주인공들은 동아시아 네트워크복합체를 매력적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1) “平成17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04/12/10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4/1210taikou.html>);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會,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會’ 報告書: 未來への安全保障・防衛力ビジョン”, 2004/10 (<http://www.kantei.go.jp/jp/singi/ampoboue/dai13/13siryu.pdf>).
- 2) 日本外務省, “日米安全保障體制”,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index.html>).
- 3)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ttp://www.apecsec.org.sg>).
- 4) Asian Development Bank,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aric.adb.org/index.php) 참조.
- 5) “Catching the Wave: Connecting East Asia through Soft Power,”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C Berkeley, Conference October 6-7, 2007 (http://ieas.berkeley.edu/events/2007_10/05w.html) 참조.
- 6) Second East Asia Summit, “Cebu Declaration on East Asian Energy Security” Cebu, Philippines, 15 January 2007, (<http://www.aseansec.org/19319.htm>); 日本環境省,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mot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www.env.go.jp/earth/coop/coop/regional_coop_e.html); AP-NET, “Asia-Pacific Network on Climate Change,” (<http://www.ap.net.org>) 참조.
- 7) 東亞思想庫網絡(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http://www.neat.org.cn/main.htm>); 東アジア共同體 評議會 (<http://www.ceac.jp/j/index.html>) 참조.
- 8) 공동체(communitiy/Gemeinschaft)와 사회(society/Gesellschaft)의 차이에 관해서는, T, 2001 참조.

참고문헌

국문

- 김영작 · 김기석 편, 《21세기 동북아공동체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 2006.
- 노무현,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7. 8. 15 (<http://www.president.go.kr>).
- 배우성, 안휘준, 한영우, 《우리 옛그림과 그 아름다움》, 효형, 1999.
-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 손열 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2006.
- 손열 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2007.
- 이광린, “개화기 한국인의 아시아연대론”, 〈한국사연구〉, Vol. 61, No. 62.
- 하영선, “네트워크 지식국가: 늑대거미의 다보탑쌓기”,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연구원, 2006.
- 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2006.
- 하영선 · 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영문

- Acharya, Amitav and Goh, Evelyn, eds., *Reassessing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2007.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ttp://www.apecsec.org.sg>).
- Webber, Douglas,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 Armitage, Richard L. & Nye, Joseph S.,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Report,” February 2007 (<http://www.csis.org>).
- ASEAN,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ast Asia Summit,” Kuala Lumpur, 14 December,

- 2005 (<http://www.aseansec.org/18098.htm>).
- Asian Development Bank,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aric.adb.org/index.php).
- AP-NET, "Asia-Pacific Network on Climate Change" (<http://www.ap.net.org>).
- Derbaum, Fredrik S. & Shaw, Timothy, eds., *Theories of New Regionalism: A Palgrave Read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Frost, Frank & Rann, Ann, "The East Asia Summit, Kuala Lumpur, 14 December 2005: issues and outcomes," *Current Issues*, January 17, 2006, Parliament of Australia, Parliamentary Library (http://www.aph.gov.au/library/intguide/FAD/eastasia_summit.htm).
- Harris, Paul, ed., *Confronting Environmental Chan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Eco-Politics, Foreign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kyo: UN University Press, 2004.
- Hill, Christopher R., "The Six Party Process: Progress and Perils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ovember 3, 2007(<http://www.state.gov/p/eap/rls/rm/2007/94204.htm>).
- Hill, Christopher R., "East Asia in Transi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March 8, 2007 (<http://www.state.gov/p/eap/rls/rm/62755.htm>).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C Berkeley, Conference, "Catching the Wave: Connecting East Asia through Soft Power," October 6-7, 2007 (<http://ieas.berkeley.edu/events/2007.10.05w.html>).
- Jones, David Martin & Smith, Michael L. R., "Constructing communities: the curious case of East Asian Reg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 2007.
- Aggarwal, Vinod K. et.al., "Roundtable: Peter J. Katzenstein'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East Asian Regionalism,"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7 No.3, September-December 2007.
- Katzenstein, Peter J. & Shiraishi, Takashi, eds., *Beyond Japan: The Dynam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 Katzenstein, Peter J.,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Lavrov, Sergey, "Containing Russia: Back to the Futu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ormation and Press Department (http://www.mid.ru/brp_4.nsf/e78a48070f128a7b43256999005bcbb3/8f8005f0c5ca3710c325731d0022e227?OpenDocument).
- McCormack, Gavan, "Community and Identity in Northeast Asia: 1930s and Today," *Journal of Manchurian Studies*, No.2, 2006.
- Munakata, Naoko, *Transforming East Asia: The Evolut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6.
- Negroponte, John D., "The Future of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with China," May 1, 2007 (<http://www.state.gov/s/d/2007/84118.htm>).
- Pempel, T.J.,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Rozman, Gilbert,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Saaler, Sven and Koschmann, J. Victor, eds.,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London: Routledge, 2007.
- Second East Asia Summit, "Cebu Declaration on East Asian Energy Security," Cebu, Philippines, 15 January, 2007 (<http://www.aseansec.org/19319.htm>).
- Suh, J.J., Katzenstein, Peter & Carlson, Alle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Terada, Takashi, "Forming an East Asian Community: A Site for Japan-China Struggles," *Japan Studies*, Vol.26, No.1, May 2006.
- Tannies, Ferdinand (Author), Harris, Jose (Editor), Hollis, Margaret (Translator), "Tannies: Community and Civil Society," *Cambridge Texts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U. S. Department of State, "Six-Party Talks: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October 3, 2007(<http://www.state.gov/r/pa/prs/ps/2007/oct/93217.htm>).
- Webber, Douglas & Fort, Bertrand, eds.,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East Asia: Convergence and Divergence?* London: Routledge, 2006.
- Young-Sun Ha, "North Korea's Nuclear Dilemma and Complex Peace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Hiroshima Peace Institute's International Symposium "Re-committing to Nuclear Disarmament: From Central Asia to East Asia," August 5, 2007.

Yaqing, Qin, "Political Challenges and Political Will: Toward a Sustainable Process of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Sep. 2007, (<http://www.neat.org.cn/chinese/xsdt/contentshaw.php?>)

日本環境省,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mot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www.env.go.jp/earth/coop/coop/regional_coop_e.html).

기타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共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www.gov.cn/idhd/2007-10/24/content_785431.htm)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 11. 8 (<http://www.idcpc.org.cn/cpc/16da.htm>).

中共中央關於制定, "十一五" 規, 2005a. 10. 14, (<http://www.china.com.cn/chinese/zhuanti/5zqh/985977.htm>).

—————, "中國的和平發展道路", 2005b. 12, (<http://www.china.com.cn/chinese/zhuanti/book/1069398.htm>).

〈2006年中國的國防〉, 2006. 12(http://www.china.com.cn/policy/guofang/node_7009522.htm)

王毅, "思考二十一世紀的新亞洲主義", 2007. 9(http://www.neat.org.cn/chinese/xsdt/contentshow.php?content_id=229).

"平成17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劃の大綱について", 2004. 12. 10(<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4/1210taikou.html>).

安全保障と防衛力に關する懇談會,《'安全保障と防衛力に關する懇談會' 報告書: 未來への安全保障・防衛力ビズ ヨ ン, 2004. 10(<http://www.kantei.go.jp/jp/singi/ampobouei/dai13/13siryu.pdf>).

日本外務省, "日米安全保障體制"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index.html>).

麻生太郎外相 " 'ネットワク型アジア' の未來を構想する", 國際交流會議, 〈アジアの未來, 2006; アジア共同體, への道—構想と展望〉, 2006. 5. 26.

浦田秀次郎・深川由起子 編,《經濟共同體への展望》,

毛里和子 編輯,《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2》, 東京:岩波書店, 2007.

東亞思想庫網絡,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http://www.neat.org.cn/main.htm>).

東アジア共同體評議會 (<http://www.ceac.jp/j/index.html>)

貴志俊彦・荒野泰典・小風秀雅 編,《'東アジア' の時代性》, 廣島市: 溪水社, 2005.

錢國紅,《日本と中國における '西洋' の發見》, 山川出版社, 2004.

未谷匡史,《アジア/日本》, 東京:岩波書店, 2006.

子安宣邦,《'アジア' 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 東京: 藤原書店, 2003.

平石直昭, "近代日本の國際秩序觀とアジア主義", 《20世紀システム1 構想と形成》, 東京: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東京大學出版會, 1998.

毛里和子 編輯,《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全4卷), 東京: 岩波書店, 2007.

進藤榮一,《東アジア共同體をどうつくるか》(ちくま新書 636), 東京: 筑摩書房, 2007.

小原雅博,《東アジア共同體》,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5.

谷口 誠,《東アジア共同體》(岩波新書919), 東京: 岩波, 2005.

伊藤憲一・田中明彦 監修,《東アジア共同體と日本の針路》, 東京: NHK出版, 2005.

渡邊利夫 編,《日本の東アジア戰略-共同體への期待と不安》,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2005.

添谷芳秀・田所昌幸 編,《日本の東アジア構想》,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

王毅, "思考二十一世紀的新亞洲主義", 2007. 9 (http://www.neat.org.cn/chinese/xsdt/contentshow.php?content_id=229).